

다시 이 세상으로 (Back to This World)

부활절 7째 주일, 사도행전 1:15-17, 21-26; 요한1서 5:9-13; 요한복음 17:6-19; 시편 1

(사도행전 1:15,21-26 ; 요한복음 17:11,13-19; 요한일서 5:9-13)

찬송가: 447 이 세상 끝날까지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다. 지난 목요일(5월 10)일은 주님승천주일, 그 후 열흘 되는 다음 주일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이다. 이와 같은 교회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떠난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 부재의 상황에서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부닥칠 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드리신 고별기도이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불린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면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그러니, 예수의 말씀 중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당부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다. 그러니, 더 중요하고 심오한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엿들을 축복을 받았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한 학부 학생이 소속 대학의 학장과 총장이 대학 교육에 관한 정책의 큰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면 어떨까? 그 내용이 학생들의 학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그 대화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한 마디도 거들 수 없겠지만, 그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 귀기울이지 않겠나? 앞으로 대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 학생은 이분들이 나눈 대화를 늘 마음 속에 되새기지 않겠나?

이와 비슷한 경험을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을 지으신 성부와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가 긴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엿들을 수 있는 것. 이 대화 속에는 온 우주와 온 인류에 관한 계획이 들어 있다.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근거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나? 과연 예수께서 성부께 드린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제일 중요한 내용 2가지만 오늘 살펴보려 한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맺은 관계가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끼리 맺는 관계에도 그대로 확장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요 17:11을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내적 삶이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의 원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삼위일체적 내적 관계는 비서열적이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과 돌봄의 교제가 있고, 상대방의 인격적 독립을 위해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관계가 삼위일체 내에서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서로서로 관계해야 할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이론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적 내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방하는(닮는) 사람이 되라 한다.(엡5:1).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 5:48)고 예수는 말씀하신다. 로마서 12:2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3+1=4, 즉 삼위일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확인한 내용이였다. (혹시라도 탄 데 가서 제가 사위일체설을 주장했다고 말하지는 마시길.)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약속의 선언이다.

예수의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단순치는 않다. 15절을 보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예수는 승천하여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은 그대로 남겨 둔다. 그리고 그들을 이 세상에 더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하고 위험한 세상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선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험한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완전한 본을 보이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다면, 구태여 성자가 성육신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구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과 은총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신 세상이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속해 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지탱해주는 기초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 세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가 권력이 아니고, 재벌이 아니고, 강대국이 아니고, 욕망의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영어로는 “in this world, but not of this world”라는 표현인데,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17절-19절을 보니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이 나온다. 거룩의 중요한 의미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선택되었고,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일제 강점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실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권력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민족주의자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 온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반드시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왔다. 몸은 일제의 식민지에 살고 있을지 몰라도, 일제 시스템에 속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다. 죄와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귀속되어 사는 삶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 세상 속에 남아 살도록 기도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선과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완성될 수 있는 공간이고,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공간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은 예수의 지도 아래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지냈다.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게 됨에 따라, 제자들은 이제 다시 세상을 그들 스스로 직면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남아서 예수의 부재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수행하신 사명을 이어 감당해야 한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일이 위험한 상황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가 안심하고 나태해서는 안 되고, 긴장하고, 경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어떤 연예기획사대표이자 가수인 사람(박진영)이 이단종교에 속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왔다. 그 가수가 간증 비슷하게 말하는 것을 방송에서 틀어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사실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죽으면 어딜 가는지 아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자세하게 이 사람의 신앙을 아직 분석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만을 보았을 때, 이는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방식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게 하여 이 세상이 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찬송가 대부분은 마지막 절에 천국에 관한 소망을 담고 있다. 그런데 1절부터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강조하면 이상해진다. 기독교 종말론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땅은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멸망시키고 난 후 완전히 새로 만드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기독교 부활관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다. 주기도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는 기도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게 해달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한순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 많은 유혹과 핍박이 이 세상에 있다. 고통과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토에 휩쓸리어 헛되고 멸망할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게 된다.

쉽고 편하게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시지 왜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나? 이 질문을 생각해보기 위해 아까 예를 들었던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자. 일제시대에 핍박을 피해서 국외로 망명을 하여 자리를 잡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권을 빼앗긴 고국을 잊어버린다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의 삶은 그 순간 한반도 일제 치하에 살고 있던 사람과 얼마나 다르겠는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가 와서 모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가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겠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독립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 실제로 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자들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세계 속의 자랑스런 한국으로 발전한 것 아니겠는가? (윤동주 시인도 편하고 안전한 길을 버리고 예수가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갔다. 몇 개월만 보신을 하면 광복을 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윤동주 시인은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권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위대하다고 믿고, “십자가”라는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린 것이 아닌가... 특히 일제가 금방 망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펼쳐질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 사명을 더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원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아일랜드의 성인으로 알려진 성 패트릭은 386년에 지금의 영국 땅에서 태어났는데, 소년 시절 해변에서 아일랜드 해적에 의해 끌려가서 6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게 되었다. 수년간 노예로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겠는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는 곧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자신이 노예생활 하면서 본 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은 너무 야만적이었고, 원시적이었다. 자기를 잡아 노예로 만들어 고생시킨 약탈자였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연민을 이길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아일랜

드로 가기로 결심하고 12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연구하는 등 준비를 하여 아일랜드 선교사로 갔다. 461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아일랜드 전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 고상한 윤리적 수준, 여성의 참여, 학문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후 이곳에서 유럽의 고전이 대부분 필사되고 보존되어, 서구 문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 어떤 학자는, 유럽 대륙의 도서관이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경 필사본을 비롯한, 요세푸스, 아우구스티누스의 글 등 1000년 이전에 저술된 고전들 아일랜드 필사본이 없었다면 전부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불쌍한 영혼과 사명이 기다리는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성 페트릭의 이야기였다.

예수의 유언과 같은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 주셨다. 언뜻 생각하면 이 길은 고난의 길인 것 같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길은 영광과 기쁨의 길이다. 13절을 보니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에게 그 기쁨은 무엇인가? 부활절 절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떠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다시 이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인 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산다. 세상이 주는 상과 벌에 목숨을 걸고 산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파송하신 성자 예수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산다. 그것은 오늘의 요한일서 본문이 서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제목처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가 돌아와야 할 세상은 가정, 직장, 국가, 세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각 영역에서 살고 있는가? 부모를 모실 때, 자신은 최선을 다해 부모를 편하게 모시려고 하지만, 이런 저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물질적 보상이나 명성에 너무 신경을 써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낙망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 자료 ----

<죄의 고백>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소리에 더 솔깃했고, 세상 걱정과 근심 때문에, 뗏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헌신의 기도>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들을 꾸준히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 : 15 - 17 , 21 - 26

요한1서 5 : 9 - 13

복음서 - 요한복음 17 : 6 - 19

시편 1 (시편은 예배 시간에 교독합니다.)

설교시간은 20분 내외이며, 10호 활자로 A4용지 3-4매 정도의 분량입니다.

설교 후에는 준비하신 마침 기도를 해주시거나 없으실 경우,

“다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로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 (영어 제목까지)	다시 이 세상으로 (Back to This World)
성경구절	사도행전 1:15,21-26
	요한복음 17:11,13-19
	요한일서 5:9-13

사도행전 1 : 15 - 17 , 21 - 26

15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백이십 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16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17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21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22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3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맛디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24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25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

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26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요한1서 5 : 9 - 13

9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3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 : 6 - 19

6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7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9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10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11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2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

13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 다. 17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 상으로 보냈습니다. 19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 4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날 바람에 흩날리는 쪽정이와 같다.
- 5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 6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